

미국, 편파 혜택에도 WBC 준우승



▲ 타석에서 아웃 카운트 후 상대 투수를 바라보는 미국 대표팀 주장 마이크 트라웃. © AFP=뉴스1

미국이 지난 21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일본과의 'WBC' 결승전에서 2 대 3으로 패하면 준우승에 머물렀다. 일본은 2006년, 2009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대회 2연패를 목표로 메이저리거를 대거 발탁하며 '드림팀'으로 불렸던 미국으로선 쓸쓸한 준우승이었다. 특히 우승을 위해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편파적인 혜택을 누린 터라 미국의 준우승은 더욱 실망감을 주고 있다.

미국이 1라운드에서 멕시코에 탈미를 잡혀 C조 2위로 8강에 진출하자, 미국-베네수엘라의 8강전이 돌연 17일에서 18일로 하루 연기됐다. 사유는 미국 경기의 공중과 중계 편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덕분에 미국은 하루 더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꺾여온 상대 베네수엘라를 잡을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에도 발생했다.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주축인 대회 조직위원회는 미국의 8강 경기 일정을 연기한 것도 모자라 미국이 4강에서 일본을 피하게 하기 위해 확정된 토너먼트 대신 일정을 갑자기 바꾸는 혼극을 펼쳤다.

미국은 일본보다 약한 쿠바를 4강에서 만나 14-2 대승을 거뒀고, 멕시코와 혈투 끝에 결승까지 오른 일본보다 하루 더 휴식까지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23 WBC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K음바페' 정상빈, 미국 그라운드 누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울버햄프턴 소속이었던 정상빈(21)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지난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MLS 소속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이날 "한국인 공격수 정상빈을 영입했다"면서 "계약 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 3년이며 구단의 결정에 따라 옵션 1년을 추가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적료는 200만 파운드(약 246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상빈은 '한국 축구의 미래'로 기대를 모으는 유망주다. 과감한 돌파와 침착한 슈팅이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파리생제르맹)를 떠올리게 해 'K음바페'라는 별명을 얻었다. 데뷔 시즌인 지난 2021년 수원삼성 소속으로 K리그1 무대에서 6골을 터뜨려 주목받았고, 같은 해



▲ 수원 삼성 당시 골을 넣고 기뻐하는 정상빈.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 축구 A대표팀에도 발탁됐다.

정상빈은 지난해 1월 이적료 105만 파운드(약 130만 달러)에 울버햄프턴에 입단했다. 그러나 A매치 출전 이력을 따지는 프리미어리그 취업비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하자마자 스위스 그라스호퍼로 임대됐다. 이후 최근 두 시즌 동안 15경기 출전에 그쳤고, 대부분이 교체 출장이었다. 단 하나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했다. 이에 유럽 무대 도전을 접고 충분한 출전 기회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MLS로 기수를 돌렸다.

정상빈은 홍명보(LA 갤럭시)·이영표(밴쿠버 화이트캡스)·김기희(시애틀 사운더스)·황인범(밴쿠버 화이트캡스)·김문환(LA FC)에 이어 MLS 무대를 밟은 6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다.

대니 리, 한국계 최초 LIV 골프 우승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한국명 이진명)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에서 한국계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대니 리는 지난 19일 에리조나주 마라나의 더 갤러리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LIV 골프 2023 시즌 2차 대회에서 최종 합계 9언더파 204타를 기록하며 우승, 우승 상금 400만 달러를 거머쥐었다.

대니 리는 다른 교포 선수인 케빈 나, 김시환(이상 미국) 등과 한 팀을 이룬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 단체전 상금 12만 5,000달러를 더했다.



▲ LIV 골프 2023시즌 2차 대회에서 우승 확정 후 기뻐하고 있는 대니 리.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출범한 LIV 골프 개인전에서 한국계(교포) 선수가 우승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까지 LIV 골프에 한국 국적 선수는 없으며 대니 리와 케빈 나, 김시환 등 교포 선수 3명이 속해 있다.

1990년 한국에서 태어난 나 8살 때 부모와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간 대니 리는 아마추어 시절 세계랭킹 1위까지 올랐고 유럽투어 조니워커 클래식에서 우승하는 등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는 2015년 한 차례 정상에 오르는 등 통산 상금 1,536만 달러를 벌었다. 올해 초까지 PGA 투어에서 활약하다 지난 2월 LIV 골프 2023시즌 개막전부터 LIV로 이적했다.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